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 찬 훈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류의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습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시대에 따라 발전, 변천해왔다. 기원전 4000년경의 점토판에서 시작된 기록매체의 역사는 종이의 발명이후, 15세기경 인쇄술의 발달로 책자형태가 그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뉴미디어가 출현하고, 현재에는 무궁무진한 인터넷 자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도서관 장서는 기원전 1700년경의 바빌로니아 도서관을 시작으로 각 시대의 주된 기록매체를 소장하였으나 미래도서관의 '모형이 멀티미디어 도서관에서 소위 "벽없는 도서관"이라 일컫는 디지털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역시 책자형태의 도서가 도서관의 주된 장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학의 발달로 점차 많은 정보가 비도서형태로 표현되고, 많은 이용자들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도록 요구하였다. Dewey는 이미 1906년에 '도서관'이 어원학적 의미(library의 어원은 책을 뜻하는 그리스어 libri에서 나왔음을 지칭함)를 상실했으며 더 이상 도서의 장서가 아님을 천명함으로써¹⁾ 도서관이 비도서자료를 장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오랫동안 인류의 주된 기록매체였던 도서형태의 인쇄자료는 저자나, 출판자, 판차와 같은 고유의 서지적인 전통을 구축하고, 도서관은 이러한 전통에 따라 서지적 표준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간 반면,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은 책자형 도서를 목적으로 하는 서지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목록규칙의 일부로서 개발되고,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적어도 비도서자료 부분에 관한 한 목록규칙은 많은 문제점

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랫동안 도서위주로 구성된 서지적 개념이 비도서자료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편목규칙의 역사적인 측면의 고찰과 도서위주의 서지적 개념이 비도서자료에 적용되는 과정, 두 가지 측면으로 수행되었다. 즉, 역사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거시적으로 비도서자료 편목이 편목규칙에 포함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적 고찰후에는 주요한 서지적 개념별로 비도서자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로 비도서자료 편목 실무자가 비도서자료 편목을 이용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비도서자료의 용어문제

도서관이 장서로서 비도서자료를 소장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만, 비도서자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문헌에서는 비도서자료에 대해 '비서자료(非書資料)', '시청각자료', '시각자료', '청각자료', '특수자료', '특수매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의 문헌들은 'nonprint materials', 'nonbook materials', 'nonprint media', 'special media', 'audiovisual materials (media)'로 표현된다.

정의 이전에 먼저 어원적으로 비도서자료를 구성하는 'media'와 'materials'를 비교하고자 한다. 'materials'는 "media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기록의 물리적 형태를 완전한 범위로 기술하는데 사용되며",²⁾ 자료 혹은 도서관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자료의 총칭"이며,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박물관 자료와 구분하였다.³⁾ 한편 'media'는 "메시지(message)의 전송에 사용되는 경로(channel)로서, 그 경로에는 종이나 스크린에 기록될 수 있는 인쇄된 메시지, 그래픽, 사진과 투사되는 스틸사진, 라디오 생방송이나 음반에 녹음된 사운드, 텔레비전이나 필

름에 기록되는 동화상이 있다"⁴⁾ 즉, 음반에 담긴 사운드, 영화나 그 밖의 자료에 담긴 동화상은 'media'이며 이러한 'media'가 담긴 음반, 영화필름, 카세트는 'materials'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media'를 의사 전달의 모든 수단으로, 'materials'를 그 모든 수단을 수용하는(혹은 그 수단으로 기록된) 모든 물리적인 형태로서 정의 내리고, 도서관이 그 형태에 상관없이 정보를 지향하나, 편목시에 그 물리적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에서 말하는 비도서자료의 어원적 구성에는 'materials'가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Richard Fothergill은 'nonbook materials'에 대해 "엄격히 말해서 책으로 제본되지 않은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하며, 이것은 인쇄형태로 된 어떠한 메시지도 배제하며, 이것들이 마이크로 피쉬(microfiche)형식 등으로 재표현될 때는 'nonbook materials'에 포함해야한다"⁵⁾고 했다. 한편 김남석은 '비도서자료(non-book materials)'에 대해 "도서 이외의 모든 자료를 총칭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도서 자료는 인간들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도서의 형태가 아닌 도서와 대칭되는 제반자료"⁶⁾로 정의했다. 한국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은 '비도서자료-non book materials'를 "도서관 자료 중 도서를 제외한 것"⁷⁾으로 정의하고, 비책자(非冊子)자료, 특수자료로도 명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은 'nonbook materials'로 표기하는데 반해 Jay E. Daily는 "'nonprint materials'가 의미하는 바가 종종 nonbook materials로 불리는데, 'nonbook materials'는 포괄적인 도서와 상반되며, 간단히 말하면 다른 정보원을 칭하는 방식이다."⁸⁾라고 정의함으로써, 비도서자료를 'nonprint materials'로 명명하였다. 또한 ALA 용어집에서는 'nonbook materials'에 대해 시청각자료(audiovisual materials)를 참고하도록 하고, 차트, 그래프(graphs), 지도 등과 같이 텍스트 이외의 소리와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 혹은 청각적 형식으로 된 자료로 정의하고, 이것들이 읽히도록 의도되지 않은 점에서 'nonbook' 혹은 'nonprint materials'로 정의된다고 하였다.⁹⁾

현재 국내문헌은 'nonbook materials'나 'nonprint materials'에 상관없이 비도서자료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nonbook materials'로 정의 내리는 경우는 도

서이외의 제 형태를 갖고 있는 자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책자형태의 자료를 복제한 마이크로폼의 경우, 도서자료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마이크로 폼은 비도서자료(nonbook materials)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nonprint materials'로 그 명칭을 제한하면, 마이크로 폼은 인쇄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다시 비도서자료(nonprint materials)에 포함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비도서자료(nonbook materials)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그 주제가 전문어와 기술적 언어를 남발함으로써 불확실성과 혼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도서의 서명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통일된 단일용어에 대한 합의가 없음이 명백하며,¹⁰⁾ 각각의 매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칭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도서 자료 목록규칙인 AACR2R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revision: 이하 AACR2R로 약칭)과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An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4th edition (이하 AECT4로 약칭)가 공통적으로 마이크로 폼 자료를 개별적인 장으로서 다루고 있고, 한국 도서관 협회의 정의에서 materials를 도서관 자료로 정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적인 개념상 인쇄매체가 아닌 모든 자료를 총칭해 비도서자료(nonprint materials)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3) 비도서자료의 가치성

(1)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를 투영한다. 원우현은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이고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와 개입은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고 했다.¹¹⁾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매체는 말, 글, 인쇄, 그리고 전자매체로 대별될 수 있다.

인류는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언어를 기억해내는 수준에서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 원거리에도 정보전달이 가능해졌고, 사회가 확대되었다. 문자의 발명은 또한 대

용량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것을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많은 시간을 요했다.¹²⁾

하지만 인간이 사회적으로 축적한 지식의 양이 방대해지자 석판이나 동물의 가죽에 손으로 써서 베끼고 전달하는 것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¹³⁾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정보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했으며, 이때부터 도서관의 주된 자료는 책자형태의 도서가 되었다.

정보의 대량생산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교통과 통신이 분리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문자의 기록만이 아니라 소리와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인쇄매체중심에서 전자매체로의 패러다임이 이루어진 것이다.¹⁴⁾

이상과 같이 인간이 발전시켜온 정보자료는 비도서에서 도서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시 최근의 전자적 매체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로 발전해왔다. 인간의 정보자료가 오랜 기간 익숙해왔던 도서형태의 정보매체와 그 형태와 특성에서 상이한 비도서자료를 요구하게 된 데는 비도서자료만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이 도서자료의 특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 특성을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의 비도서자료의 가치성

문헌정보학으로 개칭되기 이전의 도서관학은 “문헌을 인식하고, 수집, 정리, 조직,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科學)”¹⁵⁾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의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과 이로 인한 발전적인,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위해서 이미 발생된 정보자료를 인식하고, 수집, 조직, 축적, 운용하는데 관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¹⁶⁾이다. 양자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그것이 문헌이든, 정보자료이든 간에 그것의 수집에서부터 운용까지 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문헌정보학은 그 태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가공과 운용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구성되기 이전

각 시대에 따라 정보자료들을 소장해왔으며,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책자형태의 도서가 대중적인 정보매체가 되면서, 도서를 도서관의 주된 소장자료로서 간주하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책자형태에 담겨진 문자형식만으로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인간의 정보전달매체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매체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매체가 시청각 자료, 즉 비도서 자료이다. 도서관은 이에 다양한 매체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요구에 적면하게 되면서, 비도서 자료를 도서관자료에 포함해야 했다. 김남석은 비도서 자료가 “각 자료의 특수성에 따라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없이 도서자료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화된 생생한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의가 크다”¹⁷⁾고 하고, 비도서자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비도서 자료가 사상전달의 매체로서 가치가 높다.

(a) 구체적 경험에 가까운 대응적 경험으로 사상, 사실의 이해가 쉽다.

(b) 그 감명이 깊다.

(c) 생생한 정서를 낳게 한다.

(d) 변화있는 양상을 자유롭게 첨가할 수 있다.

(e) 언어적인 것과 같은 추상성을 피할 수 있다.

둘째, 대중전달의 매체로서 많은 자료를 얻기 쉽고, 집단적인 이용에 적합하다.

셋째,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사회상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자료가 된다.

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도 다같이 교육능력을 높인다.

상기의 특성 중 첫째와 둘째는 정보자료 그 자체로서의 효용성을 밝히고 있으며, 셋째와 넷째는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비도서자료의 범위를 뉴미디어 혹은 멀티미디어로 확장했을 경우, 문헌정보학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 가치성을 더한다.

정보의 수집과 운용을 담당하는 도서관은 정보자료로서 비도서자료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도서관 자체의 운영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서 이용하기도 하였다. 마이크로 필름 발명 초기에 도서관 서가 면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이래로, 귀중도

서의 상호대차를 위한 마이크로 필름의 이용, 영화를 통한 이용자 교육과 직원의 재교육 등등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도서관이 이러한 형태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용에 이용한 예이다.

인터넷(internet) 또한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갖고 있다. 도서관이 컴퓨터기술을 도입한 이래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미래도서관 모형에서의 인터넷의 역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측된다. 문성빈은 인터넷이 도서관 이용자가 외부기관의 온라인 목록을 탐색하고 검색된 문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고 필요시에는 검색된 문헌의 일부 또는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자원의 공유 및 정보검색은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¹⁸⁾ 이상이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가치성을 따진 것이라면, 정보자원으로서의 인터넷 자원(internet resources)은 자료의 최신성, 변형의 용이성, 여러 사람과 여러 위치에서의 동시적인 공유성, 멀티미디어적 속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봤을 때,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 비도서자료는

- (1) 이용자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 (2) 정보자료 그 자체로서의 의의가 있다.
- (3) 그리고, 도서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 요인(科學技術的 要因)이다.

한편,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비도서자료의 가치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교육공학 역시 비도서자료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1980년대까지 미국 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인 AECT규칙의 개발로 나타났다.

정해광은 “인쇄물의 발달에 따른 언어주의(verbalism) 즉, 글과 말로써만 하는 학습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함은 물론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암기를 하는데 그치는 학습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교육에서 공학의 등장배경을 설명했다.¹⁹⁾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문자발명 이후의 학습방법인 언어편중주의와 문헌중심주의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 현실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습방법을 글읽기와 외우기가 아니라 관찰, 실험, 조작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동기유발, 태도변화 등 영

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²⁰⁾ 이영준은 시청각자료-비도서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²¹⁾

(1) 구체적인 심상을 통한 학습으로 개념적 사고를 풍부히 해주고, 무의미한 언어적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구체적인 경험을 줌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능률화를 꾀할 수 있다.

(3)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히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4) 복잡한 자료를 단순하게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5) 지리적으로 먼 정경이나 사건을 형상화시킨다.

비도서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두 학문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비도서자료의 위상과 지위는 학문의 구축과정과 성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문헌정보학은 사회적인 요구로서 비도서자료를 취급하며, 교육공학은 기존의 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도서자료(교육매체)를 활용한다.

둘째, 문헌정보학은 정보자료로서 비도서자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공학은 비도서자료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출현했을 때 적극적으로 학문의 구조 안에 도입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의 발전

본 장에서는 AACR을 중심으로한 비도서자료의 목록법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비도서자료 편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비도서자료가 어떻게 편목규칙에 포함되어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AACR을 기준으로 한 것은 AACR이 도서, 비도서를 막론하고 국제적 표준 편목규칙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비도서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편목규칙상 한 장(章)으로 위치한 것이 AACR 1967년판에서부터이기 때문이다.

1) AACR이전의 편목규칙

편목의 시작이 바빌로니아인들과 이집트인들이 점토판과 파피루스 권자본을 분류된 주제목록의 형식으로 조직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²²⁾는 사실에서 편목규칙이 처음부터 책자형 도서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도서와 비도서를 막론하고, 근대적 의미의 편목규칙은 그 시원이 19세기 Anthony Panizzi의 규칙²³⁾으로 시작되었고, Charles Coffin Jewett의 규칙,²⁴⁾ 그리고 Charles Ammi Cutter의 규칙²⁵⁾으로 이어진다. 상기의 규칙 중 Panizzi의 편목규칙은 대영박물관 도서관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²⁶⁾으로 비도서자료에 대한 언급이나, 취급은 없다. 다만 91조의 조항중 조항XXIX와 XXX에서 필사본을 취급하고 있고, 이후 AACR1에서 필사본을 비도서자료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Jewett의 편목규칙은 지도(maps), 판화(engravings), 음악(music)에 관한 조항 XXXVIII에서 “지도, 차트, 판화, 음악자료는 도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 자료가 도서를 위한 규칙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²⁷⁾고 규정함으로써, AACR의 제3부의 기본원칙과 동일한 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Jewett의 규칙은 비록 35페이지의 규칙 중 비도서자료에 관한 규칙이 3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서지개념에서 비도서자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의 도서자료의 편목원칙에 입각하여 비도서자료를 편목하도록 한 점은 1967년의 AACR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utter는 “이상적인 목록은 모든 주제 아래 그 주제에 관한 단행본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서라도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저작물의 완전한 서지사항을 제공하는 것”²⁸⁾이라고 밝힘으로써 목록의 범위에 단행본 이외의 자료도 포함함을 의미했다. Cutter의 사전체 목록은 기술목록을 포함하는 형식에 관한 부분과 특수자료의 편목과 다른 목록들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도서자료는 특별한 발행물과 여타 자료의 편목에 대한 규칙에서 필사본, 음악, 지도와 지도책, 기타의 저작에 관한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규칙과는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08년에, 영·미간의 공동연구의 결과로 이른바 Anglo-American Code (이하 AA Code)로 불리는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ies²⁹⁾가 영국관과 북미관으로 구분되어 출판되었다. 그러나 AA-Code는 저록과 표목에 관한 규칙으로 비도서자료에 관한 조항은 이전의 Cutter 규칙보다 오히려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만 약간의 관련성만을 띄고 있을 뿐이다. 이 규칙은 최초의 국제적 편목규칙이라는 데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비도서자료 편목에서 그 의의를 찾기는 어렵다. 이렇듯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에 많은 매체들이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목규칙이 미처 이러한 자료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혹은 도서에 관한 편목규칙에 비해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의 체계확립이 늦은 이유는 Suzanne Massonneau가 말했듯이 “비도서, 비인쇄, 혹은 시청각자료로 다양하게 불려지는 매체의 서지통정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규칙이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출현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다”³⁰⁾는 데 있다.

이후의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의 발전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두 영역에서 시작된다. 학교도서관 영역의 비도서자료 편목에 대한 관심은 Eunice Keen이 설계한 *Manual for Use In the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aterials for a High School Library*³¹⁾로 나타났다. 이 규칙은 필름, 필름 스트립, 음반, 슬라이드를 교육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비도서자료 편목요구에 대한 결과이다. Keen은 ‘도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규칙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실무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약간의 첨가와 수정을 가한’ 규칙으로서, 목록카드로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³²⁾ 이 규칙의 의의는 첫째, 비도서자료의 편목을 다루려는 최초의 시도중의 하나로서, 비도서자료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시도했다는 점과 둘째,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을 제시하는데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국가적인 표준이 아닌 개인적 활동의 독립적 노력에 의한 편목표준일 뿐이다.

각각의 도서관이나 매체센터에서 자관의 비도서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작성한 매뉴얼이나 안내서가 아닌 비도서자료가 포함된 국가적 표준편목규칙으로서 1949년에 ALA에서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이하 ALACR로 약칭)³³⁾를, LC에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이하 RDC로 약칭)³⁴⁾를 출판하는데, 이들 규칙은 1908년의 AA-Code를 보충, 확대하고자 발행된 1941년의 “편목규칙 개정을 위한 예비판”³⁵⁾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한 결과이며,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비판에는 악보 및 지도자료에 대한 규칙이 삽입되어 있다. 이후 이 규칙의 1부 저록과 표목에 대한 비판으로 ALACR이, 2부 도서의 기술에 대한 비판으로 RDC가 출판되었다. ALACR에는 특별한 형태의 저작(Works of Special Type)에 관한 장에서, RDC에는 8장, 9장, 10장에서 비도서자료를 각각 다루고 있다. 대규모 도서관에서 채택된 양 규칙은 비도서자료를 분리된 부분과 장에 배치하고, 그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여 도서규칙과 별개의 규칙으로 설정하는 내재적인 문제점 때문에³⁶⁾ 비도서자료를 비교적 많이 소장하고 있던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는 외면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나,³⁷⁾ 이들 규칙이 비도서자료규칙을 도서를 위한 규칙에 통합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점과 편목에서 공식적 지위에 있었던 ALA와 LC에 의한 편목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AACR (1967) 이후의 편목규칙

(1) AACRI

1967년, 미국도서관협회(이하 ALA로 약칭), 미국 의회도서관(이하 LC로 약칭), 영국도서관협회(이하 LA로 약칭) 및 캐나다도서관협회(이하 CLA로 약칭)의 협력하에 최초의 국제적 표준편목규칙인 AACR을 완성하게 된다. 3부로 구성된 AACR은 1부에서는 도서의 기입 및 표목에 관한 사항, 제2부에서는 기술 목록, 3부에서는 필사본, 지도 및 지도책, 영화와 필름스트립, 악보, 음반, 그림, 디자인 및 평면자료를 다루고 있다. 이 중 비도서자료는 3부에서 전체조항 400개항 중 70개항에 걸쳐 다루고 있다.

AACR은 편목규칙 그 자체로서 국제적 합의하에 발행된 최초의 국제적 표준편목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전의 5권으로 구성된 규칙, 즉 1949년의 ALACR과 RDC, 그리고 1952년의 *Phonorecord*,³⁸⁾ 1953년의 *Motion Picture and Film-*

strips,³⁹⁾ 1959년의 *Pictures Designs, and Other Two-Dimensional Representations*⁴⁰⁾를 1권으로 통합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출판되어왔던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을 도서자료규칙과 함께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규칙이 연구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규칙을 설계했기 때문에⁴¹⁾ 비도서자료 부분에서 몇 가지 명백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AACR의 문제점은 그래픽자료의 경우, 그 규칙의 대부분을 예술작품의 편목에 두고 있으며, 입체자료, 비디오레코딩이나 기계가독형 파일 등은 포함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전의 부록에 포함되었던 규칙들을 개정없이 통합함으로써 각각의 개별적인 형태의 자료들이 각각의 규칙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개별규칙의 적용은 통합목록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비도서자료 부분은 자체로는 불완전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교도서관에게 불필요한 복잡한 서지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AACR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선 실무자들, 특히 학교도서관분야의 사서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⁴²⁾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서 12장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진다.

미국 도서관협회와 캐나다도서관 협회, 그리고 의회도서관은 Ben R. Tucker의 초안으로 12장 개정판을 준비하게 된다. Tucker는 많은 비도서자료들이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매체표시와 기본저록에 있어서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⁴³⁾ 1975년에 출판된 AACR12장의 수정판은 ABCT규칙과 캐나다 규칙, 그리고 영국규칙을 참고로 하여 *Audiovisual Media and Special Instructional Material*의 서명으로 출판되었으며, 이전의 규칙보다 많은 자료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 수정판은 LC에 의해 공식적인 표준편목규칙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여타의 비도서자료 편목규칙들 사이에서 공신력을 갖게 된다.⁴⁴⁾ 1976년에 AACR 14장에 대한 수정판이 출판되었으며, AACR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의 잠정적인 규칙으로서 역할했다. 14장에서의 변화는 12장의 수정판만큼 필수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범위나 기본기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⁴⁵⁾

(2) AACR이외의 비도서 자료 편목규칙

한편, AACR에서의 부적절함을 해결하기 위해 AACR12장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1966년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Department of the Audiovisual Instruction (DAVI)은 Task Force Computerized Cataloging and Booking of Educational Media를 조직하고, *Standards For Cataloging, Coding, And Scheduling Educational Media* (이하 AECT1로 표기)⁴⁶⁾를 출판했다. 처음에 임의의 보고서 형식으로 출판되었던 이 규칙은 특히 학교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사서들의 환영을 받게되고, 이어 2판부터는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이하 AECT2로 약칭)⁴⁷⁾의 이름으로 개정되어, 4판⁴⁸⁾까지 발행되면서, AACR2R이전에 미국내 학교도서관과 미디어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이었다.⁴⁹⁾

1970년 캐나다에서는 *Non-Book Materials: The Organization of Integrated Collection, Preliminary edition*⁵⁰⁾ (이하 NBM/PE으로 약칭)이 *The organization of Non-book Materials in School Libraries*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 규칙은 1973년, *NON-BOOK MATERIALS: The Organization of Integrated Collection, First edition* (이하 캐나다규칙으로 약칭)⁵¹⁾의 이름으로 수정되어 출판되었다. 1973년의 캐나다규칙의 첫번째 판은 ALA, CLA, AECT와 캐나다 매체협회(Educational Media Association of Canada)의 회원들로 구성된 비도서자료에 대한 합동자문위원회(Joint Advisory Committee on Nonbook Materials)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출판되었다. 이 규칙은 AECT와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목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사용하기에 적당한 반면, 편목규칙이 방향에 있어서, 도서자료의 시지개념을 비도서에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AECT와 달랐다.⁵²⁾ 이 규칙은 AACR개정판 완성기까지 많은 도서관의 비공식적인 '잠정적 지침'으로 활용되었으며,⁵³⁾ 학교도서관을 위해 설계된 규칙이 도서관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다른 편목규칙인 *Non-book Materials Cataloging Rules* (이하 영국 규칙으로 약칭)⁵⁴⁾가 영국도서관협회(British Library Association: LA)와 국가 교육공학 자문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Technology: NCET)의 협조 하에 출판되었다. 영국규칙의 목표는 "첫 번째 원칙들(AACR 1판)과 영국내의 분명한 현재 요구와 실제에 가능한 한 한 발짝 물러서서, 비도서자료의 도큐멘테이션이 필수적이고 명백한 기관에서의 광범위한 실제적 유틸리티를 갖는 합리적인 규칙을 구축하는 것이다."⁵⁵⁾ 형식과 구성에서, 영국규칙은 전적으로 비도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규칙보다는 규칙의 기술이 비교적 형식적이라는 점등에서 AACR과 유사하다.⁵⁶⁾ 영국규칙 역시 AACR의 기초자료로 채택되었다.

이상과 같이 AACR이 출판된 이후 비도서자료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규칙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가 발생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Jean Riddle Weihs 용어와 기본저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특히 기본저록에 있어서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은 다음의 세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 (1) 비도서자료에 대해서 모두 서명 기본저록
- (2) 기본저록없이 몇 개의 부출저록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저록
- (3) 모든 자료에 대해 AACR의 Part I과 일관된 태도로 저록⁵⁷⁾

AECT규칙은 특히 (1)의 입장에서 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AACR의 Part I의 기본원칙은 저자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뚜렷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서명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며 캐나다규칙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AACR 1판의 매체표시는 뚜렷한 원칙없이 그 위치나 용어의 사용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었으며, 영국규칙과 캐나다규칙, AECT규칙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동소이하고, 다만 영국규칙이 용어의 결합에 의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이 시기까지의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은 연구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AACR 1판이 출현한 이후, 이전에 별개로 출판되었던 비도서자료 편목부분의 통합인 AACR 1판, 3부에 대한 비판으로 AECT규칙, 캐나다규칙, 영국규칙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 발전과정을 이루었다.

(3) ISBD (NBM)

ISBD (NBM)은 아이디어나 정보 혹은 미학적 내용의 전달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단행본적 비도서 문헌(monographic nonbook document)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러한 정의에 의해 표본이나 골동품과 같은 자료는 제외한다. ISBD (NBM)은 여타의 개별화된 ISBD와 마찬가지로 ISBD (G)의 구조와 부합하며, 그 구조에 포함된 요구사항들과 병행하도록 하였다. 1977년 다수의 여타 ISBD가 출판되었으며,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이러한 차이가 개별 형태의 자료를 만족시켰다.⁵⁸⁾

ISBD (NBM)은 ISBD (M)을 비도서자료에 적용시킴으로서 정보의 상호교환을 용이하게 함이 그 목적이었으며, 그것은 비도서자료에 대한 기술과 식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술요소의 순서를 부여하고, 기술 그 자체를 위한 구두법의 체계를 기술하는데 있다. 특히 일반자료표시(General Material Designation)를 분서명 다음에 위치시킨 것은 color coding과 같이 전자검색으로는 불가능한 서지기술을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종합목록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4) AACR2

1974년 AACR의 수정작업을 위한 국제회의가 처음 열리고, AACR 개정을 위한 합동조정위원회(JSCAACR)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합동조정위원회는 네 가지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조항은 비도서자료 편목규칙과 관련이 있다.

1) 단행본 서지기술의 기초로서, ISBD (M)의 지속적인 준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에서 표준화 원칙의 실행.

2) CLA, LA, AECT의 편목규칙과 ALA의 AACR 1 제12장 수정판을 우선으로 한 비도서자료 취급의 결정이다.⁵⁹⁾

합동조정위원회와 IFLA 위원회(IFLA Committee)는 1975년, ISBD (G)의 실시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며, 이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1977년, 합동조정위원회의 최종적인 검토작업 후에, 출판된 AACR2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Part I은 기술에 관련한

것이고 Part II는 표록, 통일표제, 참조에 대한 부분이다. 1부의 1장은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한 기술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 일반규칙이며, 2장부터 11장까지는 도서자료와 유사도서자료를 비롯하여 개별형태의 자료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다. 도서와 비도서자료를 대등하게 배치함으로써 비도서자료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14장부터 20장은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기 위하여 남겨진 부분이다. 자료의 포함 범위는 AACR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으며, 특히 기계가독형 데이터 파일과 멀티 미디어 키트가 새로 포함되었다. 이것은 조사연구도서관의 소장자료로서 비도서자료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II부에서 기존의 기본저록(main entry)과 부출저록(added entry)라는 용어대신에 접근점(access poi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저록간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도서자료 부분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 또한 기술양식에 있어서 ISBD (G)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각 자료의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ISBD구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목록저록의 수준을 세 수준으로 나누고 비도서자료에 대해선 비교적 상세하고 포괄적인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수준으로 저록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와 비도서가 동시에 파일되면서도 전체적인 목록저록의 통일성을 일치하도록 했다. AACR2는 비도서자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첫째, 그 조직에 있어서 각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도서자료와 대등한 자격으로 배열함으로써, 도서관 자료로서의 비도서자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셋째, ISBD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기술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AACR2R은 “주요한 자동화된 서지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성있는 표준적인 서지기술을 바탕으로 도서자료는 물론 비도서자료를 통합한 규칙의 기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했다.”⁶⁰⁾ 이것은 AACR2의 비도서자료 부분에 관한 개정에서 기존의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인 영국규칙, 캐나다 규칙, AECT 규칙을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AACR2는 도서자료 뿐만 아니라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에서 표준적 편목규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사용도 광범위해진다. 이것은

1977년과 1982년에 각 주의 학교도서관 감독관을 대상으로 행한 Joann V. Rogers의 조사연구⁶¹⁾를 살펴보면 명백한데, AACR2 이전까지는 학교도서관내에서 사용하는 비도서자료 편목규칙 중 ABCT4가 미국 내 가장 많은 주에서 사용되었으나 1982년의 조사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변화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AACR2가 출판된 지 4년만에 편목표준으로서의 광범위한 사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77년의 조사에서는 AACR이 출판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 미미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하다. 이러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그러한 결과가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첫째, AACR2가 이전의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이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둘째, 학교도서관계에서 자원공유를 위해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편목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또한 비도서자료 편목부분에서 AACR2가 완전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도서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Sheila S. Intner가 1981년에 932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분석된 448개의 공공도서관 중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으로서 AACR2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은 46%에 불과했다.

(5) AACR2R

ALA, LA, LC, CLA, BL (영국도서관)은 1977년 다시 합동조정위원회를 결성했으며, 1981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목록위원회가 참여하였다. 조정위원회는 간략판을 발행하였으며, IFL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개정의 목적은 AACR2 이후의 합동조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결정을 통합하여 구체화시키고, 그간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용에 용이하도록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경우를 다루는 규칙과 예를 첨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82, 1983, 1985년에 발행되었던 개정에 관련된 사항들과 미발행 개정판을 포함하여 AACR2R을 발행하였다.⁶²⁾

이 규칙은 기존의 기본 개념을 유지하고 기술논리적인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조직과 구성의 큰 구조는 유지되었

으며, 마이크로 컴퓨터 과일이 도서관장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규칙을 보완하고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을 때, 1967년 AACR 이전의 시기는 도서를 주요한 대상으로 한 편목규칙에서 기존의 도서관에서 관리해오던 지도, 악보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별개의 규칙을 마련하였으며, AACR이 출판되면서, 공학의 발달에 의한 뉴미디어의 출현과 AACR이 가지는 비도서자료 편목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이 출현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국규칙, 캐나다규칙, ABCT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을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AACR2는 도서자료 뿐만 아니라 비도서자료 편목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도서자료 편목의 역사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비도서자료의 서지적 특성

인쇄자료인 책은 필사된 책에 비해 정보의 양과 신뢰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하였다. 필사된 책과는 달리, 인쇄된 책은 색인이 작성되었고, 페이지가 매겨졌으며 또한 표제지가 삽입되었다.⁶³⁾ 인쇄된 자료의 페이지 수, 목차,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색인 등은 결국 독자가 관심있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⁶⁴⁾인데 반해, 표제지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편목자가 편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정보원으로서 도서의 한 부분을 이루고 보통 완전한 서명, 저자명, 공저자명, 발행처, 발행지, 발행일을 포함하고 있다.⁶⁵⁾ 특히 표제지와 표제지에 포함된 저자, 판차, 그리고 출판자 등은 도서의 서지기술에서 핵심 개념이며, 서지개념을 일반화하고, 모든 편목규칙에 적용 가능한 규칙 설계를 목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비도서자료에 적용할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선 표제면, 저자, 판차, 그리고 출판자와 같은 도서의 서지적 개념과 책자형태의 자료에선 전례가 없었던 매체표시가 비도서자료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비도서 자료가 일반자료와 그 서지적 특성면에서 다양하게 특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서지적 개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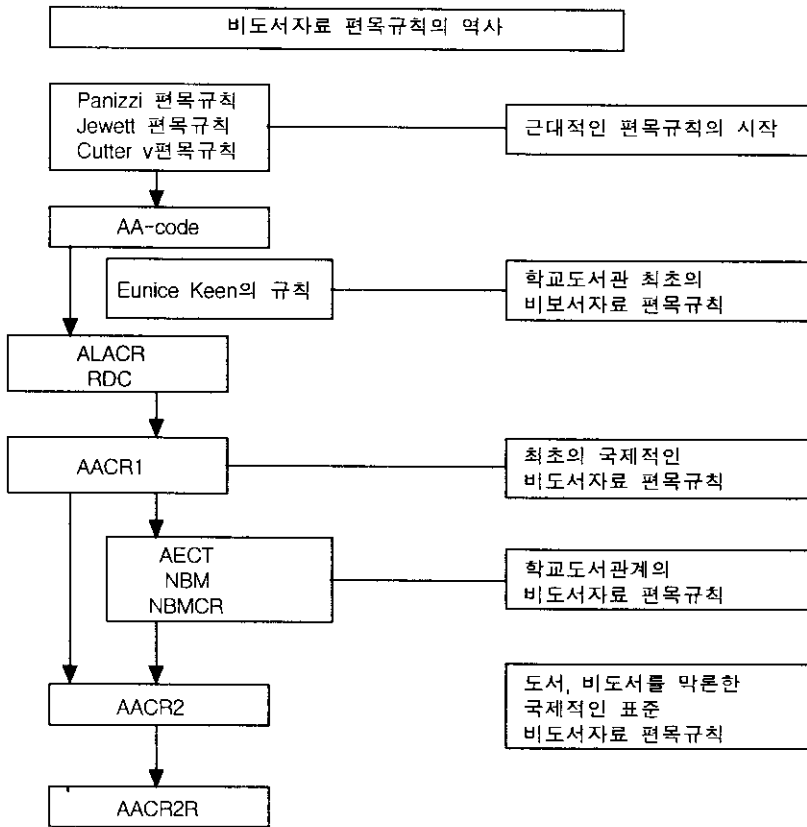


그림 1.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의 역사

1) 표제지

표제면은 도서의 표준적 부분으로서 서지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정보원이다. 표제면의 정보는 그 위치에서 찾기가 쉬우며, 서지 성격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표제면이 도서의 서지적 전통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비도서자료의 경우에는 한 위치에 범주화되어 있지 않다. Christopher Ravilious는 “오랫동안 구축된 전통에 의해 표제면은 서지적 세목들이 모이는 위치가 되었으나, 시청각 자료의 제작자들은 그러한 서지적 전통이 전무하며, 그들은 서지사항을 위한 위치의 선정에서 서지적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⁶⁶⁾ 이것은 비도서자료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자료들은 다양한 서지적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모든 비도서자료를 포괄하는 표제면의 정의를 구축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영화나 필름스트립과 같이 영상기구를 통해 보여지는 자료의 경우, 자료 그 자체에 서지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이때 서지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프레임, 즉 표제 프레임(title frame)은 순서상 그 자료의 영상에서 시작이나 끝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자료 그 자체에 문자형태로 서지정보가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근래의 영화에서 표제 프레임이 판권지와 유사하게 끝 부분에 나타나는 점은 도서와 유사하지만, 영상되어야만 하고, 그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지나쳐가기 때문에 서지데이터의 전사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에서는 용기나 부록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같은 시각매체이지만 지도, 그림, 사진과 같은 자료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한 면에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와 이 정보와 관련한 서지데이터를 모두 표현함으로써, 서지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하나 이상의 서명이 나타날 경우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어렵다.

창각매체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자료 그 자체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음성적(音聲的) 서지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영화나 필름스트립과 같은 자료처럼 서지정보를 추출하기란 난해하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음반의 경우, 음반에 부착된 레이블이나, 음반을 담고있는 용기에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지만, 이 경우 광고나 마케팅을 위한 문건들 중에서 순수한 서지정보를 가려내는 것 역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비도서자료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 하에 편목작업을 하기 위해선 주정보원(主情報源)으로서 표제면의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자료들을 살펴볼 때, 그 위치와 내용의 복합성의 두 가지 기준으로서 표제면을 규정함을 알 수 있다. 도서의 경우, 페이지의 순서상 시작부분에 타이틀 페이지를 위치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선례를 비도서에 적용할 때, 순차적으로 읽히거나, 해독되거나, 감상되는 자료의 경우에 주정보원인 표제지를 앞부분에 위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폼이나, 필름스트립, 영화의 경우 표제프레임을 프레임의 앞부분에 위치시키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위치의 기준은 또한 그 자료 자체의 정보를 외부의 정보원보다 우선시하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 자체의 정보를 우선시 하는 것은 그 영속성에 기인한다.⁶⁷⁾ 디스크나 카세트의 레이블은 표지나 부록자료보다 선호되며, 키트(kit)나 게임과 같은 자료는 용기를 주정보원으로서 선호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주정보원이 자료 그 자체와 지속성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기준은 제공되는 정보의 복합성이다. 즉 가장 완성되고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비도서 자료에 적용할 경우 위치의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음반의 경우, 위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주정보원이 되는 레이블이 공간적 제한 때문에 충분한 서지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재킷이나 팸플릿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절하며, 마이크로폼의 경우 첫 번째,

프레임이 “소장정보”나 “간략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⁶⁸⁾

AACR2R이나 AECT4의 경우, 모형(model)이나 실물(realia)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그 자체에서 추출한 정보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위치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저작성의 개념

도서에서의 저자라는 개념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저자를 비도서자료에 적용하게 될 경우 그 개념은 불분명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AACR이나 AACR2, AACR2R의 경우에서 저자는 그 저작의 지적, 예술적 내용의 창작에 있어서,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69~71)} 그러므로, 사진, 악보, 그림, 지도의 내용에 우선적인 책임자, 사진작가, 작곡가, 화가, 지도제작자는 그 저작의 저자가 된다. 이렇게 비교적 오래 전부터 도서관의 장서로서 인식되었으며, 하나의 저작에 관하여, 그 저작의 창작에 하나의 역할만이 관련된 단일 저작성의 경우에는 저자의 식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새로이 편목규칙에 포함된 자료나, 하나의 저작에 저작성이 여러 개인 자료의 경우는 저자의 개념을 부여하고 정의 내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목규칙이 제시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용어의 문제이며, 둘째는 저작성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Antony Croghan이 저자라는 용어대신 “창작자(creator)”라는 용어를 제안했듯이,⁷²⁾ AECT4는 저작의 창작에 있어서 저작의 중요성을 각각의 매체의 특성에 따라 고려하고, 저자라는 용어대신 창작자라는 용어를 유사도서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비도서자료에 확장, 적용시켰으며, AACR2R은 저자라는 용어에 광범위한 매체의 창작자를 포함하여, 각각의 형태의 창작자를 저자로 인정했다.

영화나 음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저작에 하나 이상의 창작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어느 역할을 저자로서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편목규칙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AACR2R의 경

우, 음반의 경우에는 작사자, 작곡자, 영화의 경우에는 제작자, 감독, 애니메이터를 저자로 인정하며, AECT4는 각각 편곡자·연주자·감독·제작자, 제작자·감독으로 규정함으로써 창작활동에서의 우선순위를 암시적으로나마 부여하고 있다.

3) 기본저록을 위한 통일성 원리

Carolyn O, Frost는 비도서자료에서 기본저록규칙에 대한 접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⁷³⁾

첫째,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도서와 비도서는 근본적인 유사성이 있다.

둘째,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단일규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도서와 비도서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도서의 기본저록 규칙을 비도서에 적용할 수 없다.

영미계 편목규칙의 전통은 저자기본저록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왔다. AACR의 경우, 저록을 위한 규칙의 일반원칙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⁷⁴⁾

1) 저록은 반드시 저자나 또는 한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저자아래로 하여야 한다.

2) 저자 또는 주저자가 없고 편자가 그 저작의 존재를 위하여 주로 책임을 가질 경우, 반드시 편자아래 저록하여야 한다.

3) 여러 저자에 의한 저작을 모은 것일 경우, 표제지에 편찬자명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 편찬자명아래 저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저작들로서 그 저작성이 혼란스럽고, 결정할 수 없으며, 알려지지 않은 경우, 서명아래 저록 하여야 한다.

위의 원칙에서 1)과 4)는 AACR이 저자기본저록에 대한 원칙에서 첫 번째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AACR은 영화와 필름스트립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와 성격상 저자저록이 부적당하며, 표제로 식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므로 표제 아래 저록할 것⁷⁵⁾을 지시했다.

이에 반해, AECT규칙은 그 3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공저자의 특성과 범위는 저자기본저록에 부적절하며, 그러므로 모든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서명기본저록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함⁷⁶⁾으로써, 세 번째 접근방법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AECT4는 4판에 이르러 모든 자료에 대한

하나의 통일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즉, 그 저작의 창작에서 지적, 예술적 책임성이 명백하고, 그 저작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저자에 대하여 기본저록을 허락한 것이다. AACR2 역시 모든 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저록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AACR2는 예술작품, 악보, 음반을 제외하고,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하나의 기본저록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4) 매체표시사항

매체표시(medium designator)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확대한 집합으로서 자료가 속하게 되는 종류를 지시하게 된다. 여타의 비도서자료에 대한 서지적 기술이 도서의 서지적 개념에서 차용되어 발전한 반면, 매체표시는 비도서자료의 서지통정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도서의 서지적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와 용어의 특정성 정도, 그리고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매체표시의 기능과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매체표시의 기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 1) 자료의 형태 지시
- 2)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 안내 지시
- 3) 동일한 서명을 갖는 개별 매체의 형태 지시

상기의 1)과 2)는 주어진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의 관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체표시가 담당하는 역할과 관련이 된다. 즉, 형태에 관심이 없거나 원치않는 정보를 미리 여과함으로써, 조기통보 장치(早期通報裝置)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남태우에 의하면 매체표시를 “자료가 속한 자료의 유별(類別)을 가리키는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정보자료의 종별에 대한 예언이 주 기능”⁷⁷⁾이라고 하고, “자료의 특성을 즉각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이용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⁷⁸⁾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의견에 대해 매체의 형태와 그에 필요한 도구 지시는 서지 정보의 중요한 한 요소이며, 이런 정보가 순전히 정보의 선택과 배제에 대한 근거일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Peter Lewis에 의하면 매체표시를 조기통보장치로 간주하는 것은 비도서매체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보여주

는 것이며, “복합매체도서관에서 매체는 공평하게, 어떠한 불평등도 있어서는 안된다”⁷⁹⁾는 주장을 펼쳤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든, 그것이 필요한 정보라면, 이용자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든, 혹은 어떠한 도구를 필요로 하던지,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오히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특정 형태의 자료라면, 혹은 그러한 형태의 자료를 선호한다면, 이용자에게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지기술이 될 것이다. 즉, 매체의 특성과 이용자의 요구는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체표시는 서지기술의 한 요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러한 매체표시의 위치에 대한 기술규칙의 내용은 어떠한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체표시의 위치는 그 기능과 관련하여 목록에서 두 위치에 나타난다. “조기통보 장치”로서 그 기능을 강조할 때, 서명의 영역에 나타나며, 서지기술의 한 요소로서, 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도구의 유형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형태기술사항에 나타난다. AACR2R에선, 전자를 일반자료표시(General Material Designation=GMD), 후자를 특수자료표시(Specific Material Designation=SMD)로, AECT4에선 각각 General Physical Form Designator (=medium designator), Specific Designator로 지시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GMD는 가능한 한 총괄적이고, 명백해야하며, 신속하게 목록에 표현하기 위해서 서명사항에 나타난다. SMD는 필요기구의 유형을 지시하기 위해 특정적이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즉 어떠한 자료에 대한 형태기술정보가 두 부분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AECT4의 경우, 일반자료표시에 해당되는 매체표시는 완전한 서명사항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 매체표시는 서명의 길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AECT4의 기술양식이 ISBD (M)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ISBD (G)를 기술양식으로 하는 AACR2나 AACR2R은 GMD를 본서명의 뒤, 대등서명, 여타서명정보의 앞에 위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SMD는 필요한 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술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하나의 서지정보로서, 상세한 물리적 형태의 기록을 위하여,

형태기술사항에 포맷이나 특성에 일치시켜 저록하도록 한다. 과거의 도서형태의 자료에서 물리적 기술이 그 자료를 물리적으로 식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만을 수행했다면, SMD는 비도서자료편목에 있어서, 자료의 종별을 식별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도구를 지시하는 기능을 형태기술사항에 부여한다.

5) 판표시

판차는 목록저록에서 판차사항을 기술할 때, 필요로 한다. 판차 역시 도서자료의 서지적 개념에서 파생한 것이며, 도서자료를 염두에 둔 판차의 초기 정의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에서 나온, 인쇄된 출판물의 사본이라는 기저에 두고 있다. 도서자료의 경우에는 판차의 정의 및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다. ALA는 판차에 대해 “도서와 유사(類似) 도서자료의 경우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이든, 사진 기술에 의한 것이든 근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에서 생산되는 서지적 항목의 모든 사본”⁸⁰⁾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판차의 개념을 비도서자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ALA와 IFLA는 비도서자료의 판차에 대해서 “하나의 원본 복제에서 생산되고, 특별한 발행처나 그러한 발행처들에 의해 발행된 모든 사본”⁸¹⁾으로 정의하였으며, AECT4는 “동일한 원본에서 생산되어, 한번에 혹은 간격을 두고 발행된 저작의 모든 사본”⁸²⁾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에서, 다음의 전제조건을 추출해 낼 수 있다.

1) 물리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지적, 예술적 내용에도 변화가 없다.

2) 원판(master)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판차의 하위범주에는 발행(issue)의 개념이 포함된다. AACR2R은 발행에 대해 “미세하지만 잘 정의된 변화에 의해 그 판차의 다른 사본과는 구별되는 그룹을 형성하는 판차의 사본”⁸³⁾으로 정의 내렸으며, ISBD (NBM)에서는 판차사항이 “동일한 표현형식으로 된 다른 발행과는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에서 명백한 차이를 갖고 있는 특별한 형식의 표현으로 된(예를 들어, 사운드 카세트 혹은 사운드 디스크 등) 저작의 발행 혹은 발행들과 관련한 용어”⁸⁴⁾라고 설명함으로써, “변화”가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의 차이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ISBD (NBM)은 재발행에 대해, “동일한 물리적

형태로 된 이전의 발행으로서, 동일한 원본에서 생산된 자료의 명명되거나 혹은 정의된 한 묶음의 사본, 그리고 동일한 출판사, 혹은 제작사로부터의 출고⁸⁵⁾로 정의함으로써 발행과 판차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함을 부여하고 있다. 즉, 동일한 원본은 지적, 예술적 내용에서의 동일성을, 동일한 물리적 형태는 원본의 물리적 형식과 동일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의 지적·예술적 내용과 물리적 형식의 변화에 대해 편목규칙은 그 각각에 대해 다른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AACR2R은 수정이 원작의 특성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거나 표현매체가 변화했다면, 새로운 저작의 적절한 표목아래 수정된 다른 것을 저록하도록 했다.⁸⁶⁾ 지적, 예술적 내용의 변화는 주지한 바처럼 도서형태의 서지적 전통에서 이미 구축되었다. 비도서자료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편목에서의 물리적 변화의 수용이다. 저작의 물리적 변화의 예는 여타 형식으로서의 복제와 재생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기의 논리에 의하면, 복제는 그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나, 물리적 형식에서 명백한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새로운 판으로 간주해야 한다. AACR2R은 저작이 두 개 이상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용 가능한 다른 형식을 기술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형태기술사항과 주기사항을 이용한 기술방법 둘째, 다단계 기술
- 셋째, 각각의 형태에 대한 분리된 기술

이러한 경우에 대해 AECT4는 “동일한 혹은 다른 매체로 된 장서에서, 저작의 각각의 변형은 각각 편목된다.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변형은 주기에 주어진다⁸⁷⁾”고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다.

6) 발행처

한국도서관협회는 “발행사항에 대해서 도서의 발행, 인쇄에 관련된 사항 표시라고 정의하고, 표제면이나 판권기에 있는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을 기재⁸⁸⁾하도록 했으며, 발행처(publisher)에 대해 “도서 기술의 한 요소로서, 출판물의 간행에 책임을 진 개인이나 단체, 혹은 출판사라고도 했다.”⁸⁹⁾ 사전적 의미에서 “출판자 다큐먼트의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와의 협상, 그

들의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행위, 그리고 대중에 대한 배포를 포함한 과정⁹⁰⁾이다. 상기의 정의에서 발행사항은 도서의 서지적 개념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上田 修一은 기획에서 인쇄, 제본까지의 과정이 출판을 구성한다고 하고, 출판의 출현을 구텐베르크의 발명이후로 봐야 한다고 했다.⁹¹⁾ 그렇다면, 비도서자료의 발행사항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행사항의 주체로서, 발행처의 개념이 도서자료의 발행자 개념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ISBD (NBM)은 발행사항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물리적인 제작과 관련하여 출판, 배포 등의 활동을 결합하였을 때, 출판·배포나 혹은 단순히 물리적인 제작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불확실할 때, 출판·배포 등과 관련한 것으로서 발행사항을 취급한다고 하고,⁹²⁾ 다음의 용어가 그 역할에 관련한 사항을 구성한다고 하였다.⁹³⁾

- 발행자(publisher)
- 제작자(producer)
- 제작사(production company)
- 배포자(distributor)

상기의 용어들 중 producer, production company는 도서자료의 출판, 배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용어들이다. 한국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상기의 용어들 중 제작자(producer)에 대해 “영화 제작에 있어서, 기획부터 완성까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영화의 흥행, 제작에 관련된 경영 및 기업적인 요소가 여기에 포함된다⁹⁴⁾”고 했으며, 제작사(production company)에 대해 “영화내용이나 형식을 결정하고 제작책임을 지는 회사⁹⁵⁾”로 정의함으로써 영화자료로 한정하였다. AACR2R 또한 일반규칙의 판차사항에서 publish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영화자료에서 제작자가 책임사항에 주기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화의 제작자가 영화의 지적 책임 이상을 포함함을 암시하였다. AECT4는 제작자(producer)에 대해 자료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고, 생산과 제작에 책임이 있는 회사, 학회, 조직 혹은 개인이라고 함으로써⁹⁶⁾ 제작자의 정의를 일반화하였으며, 제작자와 배포자 뿐만 아니라 후원자(sponsor)도 발행사항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출판자의 정의와 개념이 비도서자료의 서지기술에 적합하도록 확장되어온 것처럼, 출판지와

출판일 역시 각 편목규칙에서 자료의 형태에 따라 삭제되거나 수정된 채로 규정되었다.

7) 통합 비도서자료 목록의 접근법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통합 목록에 대한 접근은 동일한 서지개념이 도서, 비도서 양자에 적용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면, 모든 자료에 대한 통일된 형식의 기술과 저록을 성취하기 위한 단일 집합의 원칙을 편목규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⁹⁷⁾

영미계 편목규칙의 변천은 단일원칙에 의한 통합 목록의 구축을 향한 발전의 단계를 보여준다. 1949년, ALA의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ALACR)⁹⁸⁾와 LC의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RDC)⁹⁹⁾는 부록에서 영화, 필름 스트립, 음반, 평면적 매체에 대한 기입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비도서자료에 관한 규칙 자체가 그 형태에 따라 분리된 부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통합편목규칙으로서는 불완전하지만, 도서와 유사도서자료를 위한 규칙과 비도서자료 규칙을 하나의 규칙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AACR 초판은 규칙을 세 부분으로 분할하고, 그 중 3부에 비도서자료를 위한 규칙을 할당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통합목록의 규칙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1부와 2부가 3부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3부 규칙 자체가 도서자료를 위한 규칙의 확장이라는 점도 통합편목규칙이라는 목표에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부에 적용 가능한 1부와 2부의 기술요소들의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통합 목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통합목록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은 서지기술에 포함되는 정보의 형태, 정보요소의 순서, 구두법 등에 대한 표준인 ISBD의 개발이다. ISBD의 기본적 모형인 ISBD (M)이 ISBD (NBM), ISBD (G)의 개발 이전에도 비도서자료에 대한 서지통정의 표준으로서 활용되었던 사실이지만,¹⁰⁰⁾ 완전한 표준으로 확대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AACR2 이전의 편목규칙은 서지 레코드에 포함되는 기술 요소에 대한 합의없이 구축되었다.

AACR2는 ISBD (G)를 모든 서지자료의 표준적인

기술에 대한 구조로 사용하였다. AACR2는 이에 따라 개별 매체에 대한 편목에서, 큰 구조의 변화없이 가능한 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ISBD (G) 역시 모든 형태의 자료에 적합한 일반화된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몇몇 자료에 대하여 다른 형태의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자료(혹은 출판)영역은 여타의 ISBD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기술영역으로 ISBD (S)와 ISBD (CM)에서 연대기적 기술과 권호, 축척·영사에 관한 기술을 위해 사용한다.¹⁰¹⁾ ISBD (G)는 AACR2와 여타의 개별적인 ISBD의 기초가 되었다.

AACR2는 규칙을 크게 기술과 접근점의 선택으로 구성했다. 이전 판에서 비도서자료 편목을 위해 도서를 위한 기술에서 유사성을 추출해 여타의 비도서 자료에 대해 확장되어 적용된데 반해, 1부 기술에서 일반규칙을 구축하고, 이후에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를 위한 규칙을 할당함으로써, 규칙의 물리적 구조를 모든 규칙에 평등하게 구축했다. AACR2의 일반규칙은 이후 출현할 수 있는 여타 형태의 비도서 자료에 대해 개별적인 규칙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도서자료의 확장에 대한 여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규칙의 전통은 AECT규칙이 좀 더 이른 시기에 구축했다. AECT 규칙 1판은 편목규칙과 관련한 GROUP1에서 개별매체에 대한 특별한 개별규칙없이, 주제명 표목과 함께 기술을 다루었으며, 3판에서는 편목규칙으로 명명된 section 1에서 저록과 기술에 대한 일반규칙을, section 2에서 개별 자료에 대한 규칙으로 설계되었다. AECT4 역시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양 규칙에서 일반규칙의 제정배경과 구성범위는 약간 다르지만, 통합목록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구조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결 언

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책자형 도서는 아니었다. 15세기 인쇄술의 개발은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류의 주된 기록매체가 되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도서는 고유의 서지적 전통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서지적 전통을 바탕으로, 도서관은 도서자료에 편목

규칙을 일찍부터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비도서자료는 각각의 매체에 따른 상이한 물리적, 서지적 특성으로 인해, 편목규칙을 구축하기가 어려웠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에 새로운 형태의 매체들이 개발되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새로운 형태, 혹은 비도서형태의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서, 도서관은 도서자료만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도서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편목규칙으로 비도서자료를 편목하였으며, 이후에는 편목규칙의 한 부분으로서 비도서자료를 인정하게 되었다.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의 발전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양 기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편목규칙이 주로 연구도서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학교도서관 실정에는 맞지않기 때문이었다.

최초의 국제적 편목규칙인 AACR1판은 연구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므로, 비도서자료 부분이 규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비도서자료 편목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하기 있었기 때문에, AACR 규칙 자체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도서자료를 포함하고 있던 학교도서관계는 AECT규칙이나, NBM, NBMCR과 같은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을 설계했다. 이러한 규칙들은 비도서자료 편목에 있어서 만큼은 그 이용이 AACR보다 대중적이었으며, AACR개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이후 개정된 AACR2는 ISBD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도서자료 뿐만 아니라 비도서자료 편목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편목규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용자가 관심있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표제면과 표제지에 포함된 저자, 판차, 그리고 출판자 등은 도서의 서지적 개념으로서 편목규칙의 설계를 위해선 필수요소이며, 이것을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에 적용하기 위해선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도서자료를 위해 고안된 매체표시는 도서의 서지 개념에는 전례가 없던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서지 개념은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도서자료 편목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자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 장서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참 고 문 헌

- 1) www.sils.buffalo.edu/faculty/ellison/Syllabi/519Co.../SCAN2.htm 98-05-14.
- 2) Richard Fothergill. Non-book materials in Libraries; a practical guide. 3rd ed, London, Clive Bingley, 1990. p.3.
- 3)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 4) Richard Fothergill. Non-book materials in Libraries; a practical guide. 3rd ed, London, Clive Bingley, 1990. p.3.
- 5) loc. cit.
- 6) 김남석. 비도서자료: 정리의 이론과 실제.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3. p.1.
- 7)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176.
- 8) Allen Kent.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68. vol.20, p.101.
- 9) ALA.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p.15.
- 10) Richard Fothergill. Nonbook materials in librari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Ltd, 1990. p.2.
- 11) 원우현. 현대미디어이론.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1. p.123.
- 12) 이인호. 정보환경의 변화의 법의 패러다임. 서울,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9. p.36.
- 13) 황동열. 문자문화와 정보화사회, in 문자의 세계전; 한글만포 550돌 기념도록. 서울, 예술의전당, 1996. p.105.
- 14) 이인호. 정보환경의 변화의 법의 패러다임.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9. p.42.
- 15) 정필모. 문헌정보학의 형성논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15.
- 16) *ibid.*, p.27.
- 17) 김남석, 비도서자료: 정리의 이론과 실제.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3. p.5.
- 18) 문성빈. “도서관에 있어서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도서관문화. vol.38, no. 1, 1997. p.50.
- 19) 정해광. 영상매체를 통한 학습효과 연구: 중학교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5.

- 20) 정해광. 영상매체를 통한 학습효과 연구: 중학교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5.
- 21) 이영준. 시청각교육론. 서울, 교학연구사, 1984. p.7.
- 22) Pearce S. Grove, *Nonprint Media in Academic Libraries*. Chicago, ALA, 1975. p.1.
- 23) British Museum. Rules for the compilation of the catalogue of printed books in the british museum. 「drafter by Panizzi」, London, British Museum, 1841.
- 24) Charles C. Jewett. *Smithsonian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d Titles with Rules and Example*. 2nd ed., Washingto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1853.
- 25) Charles Ammi Cutter.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ue*. 4th ed., rewritten,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 26) 김창하, *목록법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25.
- 27) Charles C. Jewett. *Smithsonian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d titles with rules and example*. 2nd ed., Washingto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1853. p.62.
- 28) Charles Ammi Cutter. *Library Catalogs,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ir History, Conditions and Managemen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76. p.549.
- 2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ritish) Library Association.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ies*. American edition. Chicago. ALA. 1908.
- 30) Suzanne Massonneau. "Development in the Organization of Audiovisual Materials", *Library Trends*. vol.25, no.3, 1977. p.665.
- 31) Eunice Kee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aterials", in *Bibliographic Control of Nonprint Media*, ed. Pearce S. Grov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2.
- 32) Eunice Kee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aterials", in *Bibliographic Control of Nonprint Media*, ed. Pearce S. Grov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2. p.333, 334, 336, 337.
- 33)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9.
- 34)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The Library, 1949.
- 3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ies*. prelim, 2nd ed. Chicago. ALA, 1941.
- 36)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15.
- 37) 강미혜, "비도서자료의 편목규칙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도서관학*. 제11집, 1984.
- 38)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Phonorecords*. Washington, D.C., The Library, 1952.
- 39)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Motion pictures and filmstrips*. Washington, D.C., The Library, 1953.
- 40)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Pictures designs, and other two-dimensional representations*. Washington, D. C., The Library, 1959.
- 41) Pears S. Grove, *Nonprint media in academic Libraries*. Chicago, ALA, 1975. p.198.
- 42) Carolyn O. Frost. "The cataloging of audiovisual media: a review artice", *Library Quarterly*. vol.48, no.1, 1978. p.64.
- 43) Ben R. Tucker. "A new version of chapter 12 of the anglo american cataloging rul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19 (Summer 1975), p.261 ~ 262.
- 44)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23.
- 45) *ibid.*, p.24.
- 46)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Standards for cataloging, coding and scheduling educational media*. washington, department of audiovisual instructio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68.
- 47) Tillin, Alma W. *Standards for cataloging, coding, and scheduling educational media*. 3rd ed. Washington, The Information Science Committee of AECT, 1972.
- 48) Tillin, Alma, Quinly, William J. *Standards for cataloging, coding, and scheduling educational media: An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th edition*. Washington, AECT, 1976.
- 49) Joann V. Rogers. "Nonprint Cataloging: a Call for Standardization", *American Libraries*. vol.10, no.1

- 1979, p.47.
- 50) Jean Riddle Weihs, Shirley Lewis, Janet Macdonald. *Non-book Materials: The organization of integrated collections*. Preliminary edition,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1970.
 - 51) loc. cit.
 - 52)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18~22.
 - 53) Ronald Hagler. "The development of cataloging and rules for nonbook material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19 (Summer 1975). p.275.
 - 54) LA. *Non-Book materials cataloging rules*. NCET Working Paper no. 11. London, 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technology with the library association, 1973. p.2~4.
 - 55) loc. cit.
 - 56)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22.
 - 57) Jean Riddle Weihs. "The standardization rules for nonbook materials: A Progress Report-April 1972",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16, no.3, 1972. p.309.
 - 58) ISBD (NBM). p.5.
 - 59) AACR2, p.vii.
 - 60) Joann V. Rogers. "Progress in access to nonprint material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Winter, 1984. p.130.
 - 61) JoAnn V. Rogers. "Nonprint cataloging: A call for standardization", *American Libraries*. January, 1979. p.47.
 - 62) AACR2R, p.xiv.
 - 63) 이인호. *정보환경의 변화의 법의 패러다임*. 서울,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41.
 - 64) *ibid.*, p.51.
 - 65) Girja Kumar, Krishan Kumar. *Theory of cataloging*, 4th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82. p.53.
 - 66) Christopher Ravilious. *A survey of existing systems and current proposals for the cataloguing and description of non-book materials collected by libraries, with preliminary suggestions for their international coordination*. Paris, UNESCO, 1975. p.33.
 - 67)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35.
 - 68) loc. cit.
 - 69) ALA.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p.23.
 - 70) ALA.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Chicago, ALA, 1978. p.284.
 - 71) ALA.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rev. Chicago, ALA, 1988. p.312.
 - 72) Antony Croghan. *A Code of Rules for, with an Exposition of, Integrated Cataloguing of Non-Book Media*. London, Coburgh Publications, 1972. p.17.
 - 73)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41.
 - 74) AACR, p.9-10.
 - 75) AACR, p.282.
 - 76) Alma W. Tillin, William J. Quinly.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3rd ed. Information Science Commitee,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76. p.1.
 - 77) 남태우. "비도서자료의 매체표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15집, 1998. p.120.
 - 78) *ibid.*, p.121.
 - 79) Peter Lewis. "Writing the NBM Rules," *Catalogue and Index 34* (October 1973): 1.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s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46에서 재인용.
 - 80) ALA.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p.82.
 - 81) *ibid.*, p.82. IFLA. *ISBD (NBM)*,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7. p.2.
 - 82) Alma W. Tillin, William J. Quinly.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An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4th ed. Washington, DC,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76. p.215.
 - 83) AACR2R, p.619.
 - 84) ISBD (NBM), p.22.
 - 85) ISBD (NBM), p.3.
 - 86) AACR2R, p.332.
 - 87) AECT4, p.22.
 - 88)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 도서관협회, 1996. p.147.
 - 89) *ibid.*, p.147.
 - 90) ALA.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p.182.
 - 91) 남태우, 최희곤 공역. *정보의 발생과 전달론*. 서울, 경인문화사, 1998. p.130-132.

- 92) ISBD (NBM), p.25.
 - 93) ISBD (NBM), p.29.
 - 94)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 도서관 협회, 1996. p.253.
 - 95) loc. cit.
 - 96) AECT4, p.219.
 - 97) Carolyn O.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 in theory and practic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3. p.57.
 - 98)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9.
 - 99)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The Library, 1949.
 - 100) AECT규칙 4관 역시 ISBD (M)을 기술양식의 기준으로로서 활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 101) ISBD(G), p.12.
-